

中古音 多音字의 類型에 대한 고찰*

- 聲類를 중심으로 -

李京哲** · 吳采炫***

〈 Abstract 〉

On the types of multi-sound characters in Old Chinese:

Focusing on initials

I classified the types of multi-sound characters in old Chinese mainly focusing on Initials, and investigated the phonology system of ancient Chinese and showed how ancient Chinese changed to old Chines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It seems that natural phonological changes in one language system include exchange between velars-laryngeals and dentals, exchange between linguals and affricate dentals and exchange between n and ɲ.

(2) It cannot be seen as natural phonological changes in one language system that exchange between voiced sounds and voiceless sounds, exchange between aspirated sounds and unaspirated sounds, exchange between voiced sounds and aspirated sounds, exchange between velars and laryngeals, exchange between affricate dentals and fricative dentals, exchange between fricative dentals and vowels, exchange between consonants, exchange between palatal dentals and non-palatal dentals, exchange between ɲ and vowels, and exchange between l and vowel j. In my view, these phenomena occurred through contacts with various phonological systems in many different language groups.

(3) It is deemed that there were two different main language groups in ancient Chinese: One group distinguished between voiced sounds and voiceless sounds and the other distinguished between aspirated sounds and unaspirated sounds. Further, I presume that voiced sounds in the language group that had the voiced-voiceless distinction changed to aspirated sounds in the language group that had the aspirated-unaspirated distinction.

(4) It is thought that the changing process of linguals was linguals > affricate dentals > fricative dentals > vowel j. However, exchange between fricative dentals and vowels occurred in the language group that distinguished between voiced sounds and voiceless sounds because only voiced fricative dental sounds changed to vowel j.

(5) I view that Ancient Chinese was affected by Altaic languages or Proto-Korean because there were double consonants and the consonants ɲ · l exchanged with vowels in ancient Chinese.

Field : Phonology

Keywords : Multi-sound characters, Old Chinese, Ancient Chinese, Sino-Korean, Sino-Japanes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3S1A5A2A03045205).

** 동국대학교 교수, 음운론

*** 동국대학교 강사, 음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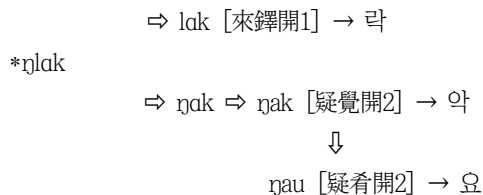
1. 序論

지금까지 上古音에 관한 연구는 江永(1613-1682)을 필두로, 董同龢(1910-1986), 羅贊培(1899-1958), B.Karlgren(1954), 王力(1979), 藤堂明保(1985), 李方桂(2001) 등 제 연구자에 의해 그 音韻體系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上古音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詩經』 등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자료의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中古音의 多音字나 漢字의 聲符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특히 藤堂明保(1985)는 聲符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上古音에 대한 연구방법을 진일보시켰다고 할 수 있다.

중국 中古音의 단계에서 이미 상당수의 多音字¹⁾가 존재하는 것을 여러 韻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²⁾, 이로 인해 중국의 中古音을 母胎로 하고 있는 韓國漢字音과 日本漢字音의 漢音과 吳音에도 하나의 漢字에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을 가진 漢字가 존재한다. 쉬운 예를 들어 [樂]이라는 漢字의 한국한자음에는 [락], [악], [요]라는 세 가지 발음이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한자음의 母胎가 된 5세기에서 8세기 사이의 중국어에서 이 [樂]字에 [락], [악], [요]의 원음에 해당하는 세 가지 발음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中古音의 聲韻으로 확인하면 [락]은 [來鐸開1 lak], [악]은 [疑覺開2 ŋak], [요]는 [疑肴開2 ŋau]에 해당한다.

그런데 모든 漢字는 원래 하나의 발음만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中古音의 多音字는 上古音에서 원래 하나의 발음이었던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여러 가지 발음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樂]이라는 漢字는 上古音 *ŋlak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中古音에서 세 가지 발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字音은 中古音 및 그 이전의 上古音에 대한 여러 가지 음운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먼저 ŋau에서 ŋak으로의 音韻變化는 상정하기 힘들며, ŋak에서 ŋau로 閉音節構造의 음운이 開音節構造의 音韻에서 k가 母音 u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中古音에서도 閉音節構造의 音韻體系를 가진 언어집단과 開音節構造의 音韻體系를 가진 언어집단이 공존했다는 점과 CVC의 字音形이 CV 또는 CVV의 字音形보다 오래된 형태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lak과 ŋak이 하나의 上古音에서 변화된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보면, 上古音에서는 ŋ이라는 複數子音이 존재할 수 있었던 音韻體系이었으나 中古音에서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전혀 다른 音韻體系로 바뀌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音韻體系를 가진 언어집단 내에서의 음운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1) 多音字는 複數音字라고도 하며, 두 가지 이상의 字音을 가진 漢字를 말하는데, 본고에서는 중국 中古音에서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이 존재했던 漢字만으로 한정한다.

2) 廣韻 등을 통해 中古音에 하나의 漢字에 여러 가지 字音을 가진 多音字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漢典(www.zdic.net)을 이용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전혀 다른 音韻體系를 가진 異言語集團 간의 言語交涉를 상징하게 된다.

이처럼 多音字는 수많은 音韻 정보를 안고 있는 화석과 같은 존재로, 이 多音字를 통해 上古音에서 中古音의 변화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多音字의 類型별 분석을 통해 먼저 聲類를 중심으로 上古音의 音韻 상태를 고찰하고, 그 上古音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 中古音이 형성되었는지 추론하도록 한다.

먼저 2010년에 개정된 新常用漢字 2,136字를 하나하나 漢典(www.zdic.com)에서 검색하여, 이 중 두 개 이상의 聲韻을 가진 漢字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한 漢字가 中古音의 多音字로, 이는 308字에 달한다.

본고에서는 이 多音字 308字 중에서 聲母에만 차이가 있는 80字와 聲母와 韻母 모두에 차이가 있는 100字, 합계 180字를 대상으로 多音字의 互用表를 작성하고, 이를 類型별로 나누어 그 분석을 통해 上古音의 聲類體系 및 上古音에서 中古音으로 변화과정에 대해 고찰해 가기로 한다.

2. 本論

이하 聲母에 차이가 있는 多音字 180字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多音字의 互用表를 작성한다.

- 1) 이하 上古音은 OC, 中古音은 AC, 韓國漢字音은 SK, 日本漢字音은 SJ, 吳音은 SJG, 漢音은 SJK로 약칭한다³⁾.
- 2) 表에는 해당 漢字, SK, SJG, SJK, AC의 聲韻1, AC의 聲韻2, 互用類型을 기재한다.
- 3) 聲韻1에는 SK나 SJ의 採擇 聲韻을, 聲韻2에는 捨象 聲韻을 기재한다.
- 4) SK·SJG·SJK는 아래의 자료에서 그 古形 및 正誤를 확인하고 古形으로 기재하며, 아래의 古文獻에서 확인할 수 없는 字音은 *로 표시한다.

SK: 新增類合, 訓蒙字會, 千字文, 六祖, 眞言·三檀, 翻譯, 小學,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⁴⁾

SJG: 法華經, 般若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⁵⁾

SJK: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 佛母大孔雀明王經, 文鏡秘府論⁶⁾

- 5) 각 漢字에 대한 聲韻의 표기는 AC의 체계에 따르며, 上聲과 去聲은 平聲으로 대표하여 나타내며, 入聲은 그대로 기재한다.
- 6) 牙·喉·舌·脣·齒音系の 순으로, 동일 音系는 淸·次淸·濁·淸濁의 순으로 정리한다.
- 7) 輕脣音은 秦音에서 重脣音으로부터 分立한 것이므로 幫母와 非母, 滂母와 敷母, 並母와 奉母, 明母와 微母는 같은 重脣音으로 기재한다.
- 8) 舌上音은 切韻音에서 舌頭音으로부터 分立한 것이므로 端母와 知母, 透母와 徹母, 定母와 澄母, 泥

3) OC는 Old Chinese, AC는 Ancient Chinese, SK는 Sino-Korean, SJ는 Sino-Japanese, SJG는 Sino-Japanese Go'on, SJK는 Sino-Japanese Kan'on의 약칭에 해당한다.

4) 崔志守(2014)의 分韻表를 참조한다.

5) 宋在漢(2012)의 分韻表를 참조한다.

6)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表를, 『佛母大孔雀明王經』은 李京哲(2005), 『文鏡秘府論』은 柏谷嘉弘(1965)의 分韻表를 참조한다.

母와 娘母는 같은 舌上音으로 기재한다.

9)2等の 齒上音은 切韻音에서 3等の 正齒音으로부터 分立한 것이므로 照母와 莊母, 穿母와 初母, 神母와 牀母, 審母와 山母는 같은 正齒音으로 기재한다.

위의 기준으로 분류한 索引을 互用的 類型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분석·고찰해 가기로 한다.

2.1 無聲音과 有聲音의 互用

〈表1〉 無聲音과 有聲音의 互用

漢字	SK	SJG	SJK	聲韻1	聲韻2	互用類型
1句	구	ク		見虞開3乙	群虞開3乙 見侯開1	k⇔g
2幾	기		キ	見微開3	群微開3	k⇔g
3卷	권	クワン		見仙合3乙	群仙合3乙 群元合3	k⇔g
4給	급		キフ	見緝開3乙	群葉開3乙	k⇔g
5乾	건		ケン	群仙開3乙		g⇔k
	간	カン		見寒開1		
6臼	구		キウ	群尤開3乙	見屋開3乙 見燭合3乙	g⇔k
7莖	경		ケイ	匣耕開2	影耕開2	ɦ⇔ʔ
8著	녀	チヨ		端魚開3甲	定魚開3甲	t⇔d
	탁	ヂヤク	チヤク	定藥開3甲	端藥開3甲	
9朝	료		テウ	端宵開3甲	定宵開3甲	t⇔d
10訂	딩		テイ	端青開4	透青開4 定青開4	t⇔th⇔d
11調	료		テウ	定蕭開4	端尤開3乙	d⇔t
12定	딩	ヂヤウ	テイ	定青開4	端青開4	d⇔t
13錠	딩	ヂヤウ		定青開4	端青開4	d⇔t
14填	던		テン	定先開4	端眞開3甲	d⇔t
15殿	던	デン		定先開4	端先開4	d⇔t
16屯	둔		トン	定魂合1	端諄合3甲	d⇔t
	둔	チュン				
17箸	녀		チヨ	定魚開3甲	端魚開3甲	d⇔t
18長	당		チャウ	定陽開3甲	端陽開3甲	d⇔t
19傳	던		デン	定仙合3甲	端仙合3甲	d⇔t
20背	빅	ハイ		幫灰合1	竝灰合1	p⇔b
21敗	패	하이		幫夫合2	竝夫合2	p⇔b
22費	비	ヒ		幫脂開3乙	幫微合3 竝微合3	p⇔b
23比	비	ヒ		幫脂開3甲	竝脂開3甲 竝質開3甲	p⇔b
24泌	비	ヒ		幫脂開3甲	竝質開3甲	p⇔b
	필			幫質開3甲		
25併	병		へイ	幫清開3	竝青開4	p⇔b

26般	반	ハン		幫刪開2	幫桓合1 竝桓合1	p⇌b
27頒	반	ハン		幫刪開2	竝文合3	p⇌b
28夫	부	フ・フウ	フ	幫虞開3乙	竝虞開3乙	p⇌b
29父	부	フ		幫虞開3乙	竝虞開3乙	p⇌b
30不	부	フ, ブ(價)		幫尤開3乙	竝沒合1	p⇌b
	불			幫物合3		
31復	복	フク		幫屋開3乙		p⇌b
	부			竝尤開3乙		
32阪	판		ハン	幫元合3	竝刪開2	p⇌b
33沸	비	フツ		幫微合3	滂物合3	p⇌b
34迫	박		ハク	竝鐸開1	幫鐸開1	b⇌p
35搬	반		ハン	竝桓合1	幫桓合1	b⇌p
36俸	봉		ハウ	竝鍾合3乙	幫東開1	p⇌b
37坊	방	パウ		竝陽合3乙	幫陽合3乙	b⇌p
38肪	방		ハウ	竝陽合3乙	幫陽合3乙	b⇌p
39復	복		フク	竝屋開3乙	幫屋開3乙	b⇌p
	부			竝尤開3乙	幫尤開3乙	
40分	분	ブン		竝文合3	幫文合3	b⇌p
41番	번	バン		竝元合3	滂元合3	b⇌ph⇌p
	반			竝桓合1	幫戈合1	
42載	지	サイ		精哈開1	從哈開1	t⇌d
43栽	지	サイ		精哈開1	從哈開1	t⇌d
44錢	전		セン	從仙開3甲	精仙開3甲	d⇌t
45漸	점	ゼム		從鹽開3甲	精鹽開3甲	d⇌t
46造	조	ザウ		從豪開1	精豪開1	d⇌t
47槽	조		サウ	從豪開1	精豪開1	d⇌t
48曾	증		ソウ	從登開1	精登開1	d⇌t
49事	스	ジ		神之開3乙	照之開3乙	d⇌t
50償	상		シヤウ	禪陽開3甲	審陽開3甲	z⇌c

위의 <表1>은 AC의 多音字에서 동일한 音系 내에 淸字와 濁字, 즉 無聲音과 有聲音이 互用된 예로 50字에 해당한다. 無聲音과 有聲音의 互用은 [k⇌g, ʔ⇌ɦ, t⇌d, p⇌b, t⇌d, t⇌d, c⇌z]와 같이 여러 音系에 걸쳐 공통적으로 출현하며, 그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다. 단지 h나 s와 같은 摩擦音系에서는 無聲音과 有聲音의 互用例가 극히 드물다.

無聲音이 鼻音 뒤에서 有聲音化는 경향은 여러 언어를 통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먼저 無聲音이 鼻音 뒤에서 有聲音化하여, 그러한 字音이 語頭に 쓰일 경우에까지 그 有聲 자질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결국 無聲音에서 有聲音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위의 <表1>과 같이 無聲音과 有聲音이 互用은 그 예가 상당히 많으며, 더구나 여러 音系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이는 無聲·有聲音의 구별이 있는 하나의 音韻體系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음운현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無聲音과 有聲音의 互用은 無聲·有聲音의 구별이 있는 音韻體系를 가진 언어와 無聲·有聲音의 구별이 없는 音韻體系를 가진 異言語間의 접촉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2.2 無氣音과 有氣音의 互用

〈表2〉 無氣音과 有氣音의 互用

漢字	SK	SJG	SJK	聲韻1	聲韻2	互用類型
1稽	계	케이		見齊開4	溪齊開4	k↔kh
2屈	굴	कुツ		溪物合3	見物合3	kh↔k
3喝	갈	カツ		曉曷開1	影夬開2	h↔ʔ
4訂	딩		테이	端青開4	透青開4 定青開4	t↔th↔d
5透	투		투	透侯開1	端侯開1 審屋開3乙	th↔t↔c
6摘	덕		테키	透錫開4	端麥開2	th↔t
7偵	딩		테이	透清開3	端庚開2	th↔t
8胞	포	하우		幫肴開2	滂肴開2	p↔ph
9將	장	샤우		精陽開3甲	清陽開3甲	ts↔tsh
10卒	졸	소쯔		精沒合1	精術合3乙 清沒合1	ts↔tsh
11趣	취	슈		清虞開3甲	清侯開1 精燭合3甲	tsh↔ts
12蹴	축	슈우(慣)		清屋開3甲	精屋開3甲	tsh↔ts
13淺	천	센		清仙開3甲	精先開4	tsh↔ts
14浸	침	شم		清侵開3甲	精侵開3甲	tsh↔ts

위의 〈表2〉는 AC의 多音字에서 동일한 音系 내에 淸字와 次淸字, 즉 無氣音과 有氣音이 互用된 예로 14字에 해당한다. 無氣音과 有氣音의 互用은 [k↔kh, ʔ↔h, t↔th, p↔ph, ts↔tsh]와 같이 여러 音系에 걸쳐 公同적으로 出現하며, 有聲·無聲音의 互用보다는 낮지만 그 出現빈도도 높은 편이다.

이 역시 동일한 언어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로, 有氣·無氣音의 구별이 있는 音韻體系의 언어와 有氣·無氣音의 구별이 없는 音韻體系의 언어라는 異言語間的 접촉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2.3 有聲音과 有氣音의 互用

〈表3〉 有聲音과 有氣音의 互用

漢字	SK	SJG	SJK	聲韻1	聲韻2	互用類型
1揭	계		케이	溪祭開3乙	群薛開3乙 見月開3	kh↔g↔k
2渴	갈	カツ		溪曷開1	群薛開3乙	kh↔g
3崎	기		키	群微開3	溪支開3乙	g↔kh
4圈	권		쿠엔	群元合3	群仙合3乙 溪仙合3乙	g↔kh
5華	화	쿠에	쿠와	曉麻合2	匣麻合2	h↔f
6訂	딩		테이	端青開4	透青開4 定青開4	t↔th↔d

7挑	도	テウ		透豪開1	透蕭開4 定蕭開4	th⇔d
8町	딩	チャウ		透青開4	定青開4 透先開4	th⇔d
9透	털	テツ		透薛開3甲	定薛開3甲	th⇔d
10撤	털	テツ		透薛開3甲	定薛開3甲	th⇔d
11隕	타	ダ		定戈合1	透戈合1 曉支合3甲	d⇔th⇔h
12士	토	ド	ト	定模開1	透模開1	d⇔th
13達	달		タツ	定曷開1	透曷開1	d⇔th
14脫	탈	ダツ		定未合1	透未合1	d⇔th
15泡	포	ホウ		滂肴開2	並肴開2	ph⇔b
16票	표	へウ		滂宵開3甲	並宵開3甲	ph⇔b
17覆	복	フク		滂屋開3乙	滂尤開3乙 並尤開3乙 滂德開1	ph⇔b
18汎	범		ハム	滂凡合3	並東開3乙	ph⇔b
19番	번	バン		並元合3	滂元合3	b⇔ph⇔p
	반			並桓合1	幫戈合1	
20請	청		セイ	清清開3	從清開3	tsh⇔cz

위의 <表3>은 AC의 多音字에서 동일한 音系 내에 次淸字와 濁字, 즉 有氣音과 有聲音이 互用된 예로 20字에 해당한다. 有氣音과 有聲音의 互用도 [g⇔kh, f⇔h, d⇔th, b⇔ph, dz⇔tsh]와 같이 모든 音系에 걸쳐 공통적으로 출현하며, 그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唇音系의 경우 p⇔ph의 互用보다도 오히려 ph⇔b의 互用이 더 많이 발견된다.

Bernhard Karlgren(1954)이 OC와 AC의 濁字에 대해 gh · dh · bh · dzh와 같이 有聲有氣音으로 재구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동일한 언어체계 내에서의 음운현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 역시 異言語間의 접촉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多音字의 형성에 관여된 커다란 두 언어 간의 音韻體系 차이는 有聲·無聲音의 대립체계를 가진 언어와 有氣·無氣音의 대립체계를 가진 언어로 양분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된다. 이를 A語와 B語로 가정하면, 두 언어의 접촉과정에서 有聲·無聲音의 대립체계를 가진 A語의 有聲音이 有氣·無氣音의 대립체계를 가진 B語에서는 대거 有氣音으로 교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LAC에서 濁字의 次淸字化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LAC의 중앙어는 無聲·有聲音의 구별이 없는 언어였기 때문에, MAC의 濁字, 즉 有聲音이 LAC에서 次淸字, 즉 有氣音으로 대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LAC의 중앙어를 접하던 민족의 언어는 OC의 B語에 해당하며, 이 B語는 OC에서도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하던 민족의 언어였으며, 그 音韻體系를 잃지 않고 있다가 LAC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 牙音과 喉音의 互用

〈表4〉 牙音과 喉音의 互用

漢字	SK	SJG	SJK	聲韻1	聲韻2	互用類型
1決	결	クエツ		見屑合4	曉屑合4	k⇌h
2雇	고	コ		見模開1	匣模開1	k⇌f
3校	교		コウ	見肴開2	匣肴開2	k⇌f
4蓋	개	ガイ(慣)		見泰開1	見盍開1 匣盍開1	k⇌f
5港	항	カウ		見江開2	匣東開1	k⇌f
6見	견	ケン		見先開4	匣先開4	k⇌f
7区	구	ク		溪虞開3乙	影侯開1	kh⇌?
8氣	기	ケ	キ	溪微開3	曉微開3	kh⇌h
9雅	아	ガ		疑麻開2	影歌開1	ŋ⇌?
10凹	요		オウ	疑肴開2	影洽開2	ŋ⇌?
11渦	와	クワ		影戈合1	見戈合1	?⇌k
12押	압		アフ	影狎開2	見狎開2	?⇌k
13解	히		カイ	匣佳開2	見佳開2	f⇌k
14降	항	ガウ	カウ	匣江開2		f⇌k
	강	カウ		見江開2		
15虹	흥		コウ	匣東開1	見東開1 見江開2	f⇌k
			クワツ	匣末合1	見末合1	
16活	활	クワツ				
17滑	활		クワツ	匣鐸合2	匣沒合1 見沒合1	f⇌k
18合	합	ガフ		匣合開1	見合開1	f⇌k
19減	감	ゲム		匣咸開2	見咸開2	f⇌k
20効	효	ガイ		匣德開1	匣哈開1 溪皆開2	f⇌kh
				カツ	匣鐸開2	
22猶	유		イウ	喻尤開3甲	見尤開3甲	j⇌k
23院	원		キン	于仙合3乙	于文合3 匣桓合1	∅⇌f
			エツ	于月合3	匣末合1	
24越	월		エツ	于月合3	匣末合1	∅⇌f

위의 〈表4〉는 AC의 多音字에서 牙音과 喉音이 互用된 예로 24字에 해당한다.

이에는 [k⇌h, k⇌f, kh⇌?, kh⇌h, kh⇌f, k⇌?, ŋ⇌?, j⇌k, ∅⇌f] 등이 존재하는데, 그 예가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k⇌h, k⇌f, kh⇌h, kh⇌f]와 같이 k·kh와 h·f의 互用이 가장 많으며, 牙音의 有聲音인 g와 喉音 h계가 互用된 예는 볼 수 없다.

이를 통해, 먼저 喉音 h계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체계에서 喉音 h계가 牙音 k계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일본어에서도 h가 존재하지 않아 曉母 h는 SJG에서 모두 k로 대체된 것처럼 OC에서도 h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체계를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럼 왜 牙音의 有聲音인 g와 喉音 h·f가 互用된 예는 없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C에서

有聲·無聲音의 대립체계를 가진 A語와 有氣·無氣音의 대립체계를 가진 B語가 공존하며 접촉했다면, A語는 牙音 k·g와 喉音 h·h를 모두 가지고 있는 音韻體系였으며, B語는 牙音 k·kh가 존재했지만, 喉音 h·h가 존재하지 않는 音韻體系였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k⇌h, k⇌h, kh⇌h, kh⇌h]와 같은 互用은 A語와의 접촉으로 B語에서 일어난 喉音 h·h의 k·kh로의 대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η⇌?의 互用은 η의 音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체계를 상징할 수 있다. 한국어 역시 語頭に η이 올 수 없어, SK에서 疑母 η은 모두 母音으로 대체해서 수용되었다. 이 역시 語頭に 鼻音이 오는 것을 꺼리는 알타이어족의 여러 언어에서 볼 수 있는 頭音法則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는 OC에서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어느 언어와의 접촉을 시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h의 互用은 w를 가진 合口韻에서만 나타나는데, SJG에서도 合口韻의 匣母는 ㄱ行으로 반영되었다⁷⁾. 따라서 ∅⇌h의 互用은 일본어의 경우와 같이 h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 즉 앞서 언급한 OC의 B語에서 일어난 h의 母音으로의 대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5 h와 다른 次清字의 互用

〈表5〉 h와 다른 次清字의 互用

漢字	SK	SJG	SJK	聲韻1	聲韻2	互用類型
1虛	히		キヨ	曉魚開3乙	溪魚開3乙	h⇌kh
2畜	툑		チク	透屋開3甲	透尤開3甲	th⇌h
	훅		キク	曉屋開3甲		
3蓄	툑		チク	透屋開3甲	曉屋開3甲	th⇌h
4墮	타	ダ		定戈合1	透戈合1 曉支合3甲	d⇌th⇌h
5臭	취		シウ	穿尤開3甲	曉尤開3甲	tch⇌h

위의 〈表5〉는 AC의 多音字에서 h와 다른 次清字가 互用된 예로 5字에 해당한다. 이에는 [kh⇌h, th⇌h, tch⇌h] 등이 해당하는데, 그 互用例는 많지 않다.

먼저 그 互用例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互用이 OC의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추측하게 한다. 후술하겠지만, AC에 걸친 多音字의 서로 다른 音系와의 互用 및 동일 聲符字를 통해 OC에서는 複數子音이 존재하는 CCV 또는 CCVV 등의 音節構造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C에서 h와 kh·th·tch와 같은 다른 音系의 次清字가 互用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有氣音은 [無氣音+h]와 같은 複數子音의 CC(즉 앞의 C는 無氣音이며 뒤의 C는 h)에서 有氣音의 單子音 C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OC의 無氣·有氣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B語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B語의 아주 오래된 흔적을 반영하는 것이며, 無聲·有聲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A語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7) 예를 들어 [和ㄱ(戈合1), 回ㄱ(灰合1), 會繪ㄱ(泰合1), 惠(齊合4)] 등과 같이 SJG에서는 匣母 h가 ㄱ行的 半母音으로 반영되었다.

2.6 牙喉音과 齒音의 互用

〈表6〉 牙喉音과 齒音의 互用

漢字	SK	SJG	SJK	聲韻1	聲韻2	互用類型
1向	향	カウ		曉陽開3乙	審陽開3甲	h↔c
2獻	헌		ケン	曉元開3	心歌開1	h↔s
3還	환	グエン		匣刪合2	邪薛合3甲	f↔z
4舌	설	ゼツ		神薛開3甲	匣點合2	dz↔f
5示	시	ジ		神脂開3甲	群支開3乙	dz↔g

위의 〈表6〉은 AC의 多音字에서 牙喉音과 齒音이 互用된 예로, [h↔c, h↔s, f↔z, dz↔f, dz↔g] 등 5字에 해당한다.

[1向·2獻·3還]은 喉音과 摩擦音系 齒音의 互用, [4舌]는 喉音과 破擦音系 齒音의 互用, [5示]는 牙音과 破擦音系 齒音의 互用인데, 이는 여러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음운현상이다.

예를 들어 英語의 알파벳 g 역시 音聲記號로서는 g이지만 이를 [ji]로 발음하며, AC를 반영한 SK는 [北京]을 [북경]으로 발음하고 있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beijing]으로 변해 있다. 또한 현대 일본어에서 [ひやし]를 [しやし]처럼 발음하여 hi가 ci로 변하는 현상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牙喉音이 口蓋音化로 齒音으로 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 互用이 [h↔c, h↔s]와 같이 無聲音은 無聲音 내에서, [f↔z, dz↔f, dz↔g]와 같이 有聲音은 有聲音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상은 OC에서 無聲·有聲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A語 내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2.7 舌音·齒音·于母·喻母의 互用

〈表7〉 舌音·齒音·于母·喻母의 互用

漢字	SK	SJG	SJK	聲韻1	聲韻2	互用類型
1適	덕		テキ	端錫開4	照昔開3 審昔開3	t↔tc↔c
2透	투		トウ	透侯開1	端侯開1 審屋開3乙	th↔t↔c
3湯	탕	タウ		透唐開1	審陽開3甲	th↔c
	상	シヤウ				
4拓	탁	タク		透鐸開1	照陌開3	th↔tc
	척					
5陶	도		トウ	定豪開1	喻宵開3甲	d↔j
6提	테		テイ	定齊開4	禪支開3甲	d↔z
7懂	동	ドウ		定東開1	穿鍾合3甲 定江開2	d↔tch
			ショウ			
8淡	담		タム	定談開1	喻鹽開3乙	d↔j
9沈	팀		チム	定侵開3甲	審侵開3甲	d↔c
10操	조	サウ		清豪開1	心侯開1	tsh↔s

11參	참	삼		淸覃開1	審侵開3乙 穿侵開3乙	tsh⇌c
12參	참	삼		淸覃開1	審侵開3乙 穿侵開3乙	tsh⇌c
13柵	책		사	穿麥開2	穿陌開3 審刪開2	tch⇌c
14折	절	세스		照薛開3甲	定齊開4	tc⇌d
15診	진	신		照眞開3甲	定眞開3甲	tc⇌d
16質	질	싯		照質開3甲	端脂開3甲	tc⇌t
		치				
17推	*추 되	스이		穿脂合3乙		tch⇌th
				透灰合1		
18劑	제	자이		從齊開4	端青開4	dz⇌t
19射	사		샤	神麻開3	神昔開3 喻麻開3 喻昔開3	dz⇌j
20蛇	샤	쟈		神麻開3	透歌開1	dz⇌th⇌j
	이	이		喻支開3甲		
21盾	순	쥬		神諄合3甲	定魂合1	dz⇌d
22植	식		쇼	神職開3甲	定之開3甲	dz⇌d
23食	식		쇼	神職開3甲	邪之開3甲 喻之開3甲	dz⇌z⇌j
24衰	쇠	스이		審脂合3乙	穿支合3乙	c⇌tsh
	최	사이				
25識	식	시키		審職開3甲	照之開3甲	c⇌tc
26娠	신	신		審眞開3甲	照眞開3甲	c⇌tc
27說	설	세스		審薛合3甲	喻薛合3甲	c⇌j
	세	제이(慣)		審祭合3甲		
28邪	샤	쟈		邪麻開3	喻麻開3	z⇌j
29斜	샤		샤	邪麻開3	喻麻開3	z⇌j
30詳	상		샤우	邪陽開3甲	喻陽開3甲	z⇌j
31羨	션	센		邪仙開3甲	喻仙開3甲	z⇌j
	연	엔				
32涉	섭		세	禪葉開3甲	端估開4	z⇌t
33召	쇼		세우	禪宵開3甲	定宵開3甲	z⇌d
34炎	염	엠		于鹽開3乙	定談開1	i⇌d
35円	원	엔		于仙合3乙	邪仙合3乙	i⇌z
36銳	예	에이		喻祭合3甲	定泰合1	j⇌d
37延	연	엔		喻仙開3甲	照淸開3	j⇌tc
38葉	엽	에		喻葉開3甲	審葉開3甲	j⇌c
39野	야	야		喻麻開3	禪魚開3甲	j⇌z
40餘	여	요		喻魚開3甲	禪麻開3	j⇌z
41洋	양	야우		喻陽開3甲	邪陽開3甲	j⇌z

위의 <表7>은 舌音·齒音·于母·喻母가 互用된 예로, 41字에 해당하는데, 그 出現빈도가 상당히 높다. 먼저 舌音과 다른 音系와의 互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表8〉舌音과 다른 音系와의 互用 類型

破擦音系 齒音	摩擦音系 齒音	于母	喻母
t↔tc, t↔dz	t↔c, t↔z		
th↔tc, th↔tch, th↔dz	th↔c		
d↔tc, d↔tch, d↔dz	d↔c, d↔z	d↔∅	d↔j

위의 〈表8〉과 같이 舌音 t·th·d는 破擦音系 齒音 tc·tch·dz 및 摩擦音系 齒音 c·z, 그리고 于母 i∅·喻母 j∅와 互用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舌音은 破擦音系 齒音과의 互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摩擦音系 齒音과의 互用이며, 于母i∅·喻母와 互用하는 것은 有聲音인 d뿐이다.

먼저 舌音과 破擦音系 齒音의 互用부터 살펴보자.

舌音 t·th·d와 破擦音系 齒音 tc·tch·dz의 互用은 한국어에서 볼 수 있는 [ㄷ·ㅌ]의 [ㅈ·ㅊ]으로의 口蓋音化나 일본어에서 볼 수 있는 夕行音 チ(ti)ㄸ·ツ(tu)ㄸ의 破擦音化와 같은 일반적인 音韻變化로 볼 수 있다. 5세기 EAC의 齒音系 3等 照母tc·穿母tch·神母dz가 OC의 舌音系에서 분화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舌音과 破擦音系 齒音의 互用은 舌音이 高位母音 앞에서 破擦音系 齒音으로 변하는 口蓋音化의 일종으로, 이는 동일 언어체계 안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音韻變化에 해당한다. 단지 그 반대현상, 즉 破擦音系 齒音에서 舌音으로의 변화는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舌音과 破擦音系 齒音의 互用은 有聲音·無聲無氣音·有氣音 사이에서 질서 없이 일어나고 있어, OC의 A語와 B語 모두에서, 그리고 두 언어의 접촉으로 형성된 언어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舌音과 摩擦音系 齒音 및 于母·喻母와의 互用은 舌音이 破擦音系 齒音으로 변화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破擦音系 齒音과 摩擦音系 齒音의 互用을 살펴보자.

破擦音系 齒音과 摩擦音系 齒音의 互用은 [tsh↔s, tsh↔c, tc↔c, dz↔z, dz↔z] 등과 같은 형태가 보인다.

AC를 母胎로 하고 있는 SK는 破擦音系 齒音을 [ㄷ]계열로, 摩擦音系 齒音을 [ㅈ]계열로 구별하여 반영하고 있지만, SJ에서는 일본어에 齒音에 摩擦音과 破擦音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ㄷ行 s로 반영되었다⁸⁾.

특히 dz↔z의 互用은 5세기 EAC에 걸친 破擦音系 神母 dz와 摩擦音系 禪母 z의 互用に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일본어에 걸친 四つ仮名の 혼동은 이와 궤를 같이 하는 音韻現象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tc>c·dz>z로의 변화까지 상정할 수 있으며, 그 요인으로 齒音에 破擦音과 摩擦音의 구별이 없는 摩擦音만으로 된 언어체계와의 접촉을 생각할 수 있다. 단지 그 예가 많지 않아 이러한 언어체계는 마이너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摩擦音系 齒音과 于母·喻母의 互用을 살펴보자.

摩擦音系 齒音과 于母·喻母의 互用은 [z↔i, z↔j, z↔j]라는 형태를 보인다.

여기에서 먼저 于母·喻母와 互用하는 摩擦音系 齒音에 齒頭音 z와 正齒音 z의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正齒音 禪母 z는 上古音의 舌音에서 변화된 것이지만, 齒頭音 邪母 z는 舌音에서 변화된 것이 아니다. 따

8) 예를 들어 開口 3等 麻韻에 속하는 字가 SK에서는 [者(ㄷ)자(照母), 車(ㄷ)차(穿母), 畝(ㄷ)사(審)]와 같이 [ㄷ, ㅈ, ㅊ]으로 구별하여 반영하였지만, SJ에서는 이들이 모두 ㄷ行的 シャ로 반영되었다.

라서 z·z와 互用하는 喻母 중에서 正齒音 禪母 z와 互用하는 것은 舌音에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齒頭音 邪母 z와 互用하는 것은 舌音에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z↔i의 互用은 3等 음류韻에만 해당되며, z↔j·z↔j의 互用은 3等 감류韻에만 해당되는데, z↔j·z↔j의 互用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于母와 喻母는 그 聲母가 子音이 아닌 母音으로, 둘 다 i와 i라는 高位母音으로 구성된다. 즉 이는 高位母音 i와 i에 前接하는 z·z가 母音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有聲音 z·z가 존재하지 언어체계에서 이를 母音으로 대체 수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또한 摩擦音系 齒音과 于母·喻母의 互用은 舌音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므로 OC의 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有聲音 z·z가 없는 B語에서 A語를 대체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舌音系와 他音系 간의 互用은 다음과 같이 [舌音 > 破擦音系 齒音 > 摩擦音系 齒音 > 于母·喻母]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表9〉 舌音에서 喻母까지의 變化過程圖

舌音		破擦音系 齒音		摩擦音系 齒音		于·喻母
t	→	tc	→	c		
↓		↓				
th	→	tch				
↓		↓		↓		
d	→	dz	→	z	→	j
				z	→	j i→j
同一言語體系 내의 音韻變化						
異言語間 접촉에 따른 音素代替						

위의 〈表9〉와 같이 舌音은 OC의 아주 오래된 단계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그것이 AC에서와 같은 淸·次淸의 대립, 淸·濁의 대립을 모두 갖춘 子音體系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OC의 아주 오래된 단계에서는 淸·濁의 대립, 즉 無聲·有聲音의 대립구조를 가진 A語와 淸·次淸의 대립, 즉 無氣·有氣音의 대립구조를 가진 B어가 별도로 존재했으며, 이들 異言語 간의 접촉을 통해 AC에서 無氣·有氣音의 대립구조와 無聲·有聲音의 대립구조를 모두 갖춘 언어체계가 성립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舌音에서 高位母音이 後接하는 경우에 破擦音化하여 正齒音이 생긴다. 물론 正齒音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精母系의 齒頭音은 OC의 오랜 시기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5세기의 EAC에 이미 正齒音이 존재했으므로 正齒音은 OC의 말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5세기 EAC의 正齒音에서 齒上音이 분화되어 7세기의 MAC에서는 齒上音이 音素로서 확립되지만, 8-9세기의 LAC에서는 齒上音이 다시 正齒音으로 합류한다. 즉 7세기의 MAC에서 중앙어의 위치를 점하게 된 언어집단의 언어체계에서는 그 子音體系에 正齒音과 齒上音의 구별이 존재했지만, 5세기의 EAC와 8-9세기의 LAC에서 중앙어의 위치를 점하게 된 언어체계에서는 그 子音體系에 正齒音과 齒上音의 구별이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破擦音系 齒音과 摩擦音系 齒音의 互用을 통해 OC·AC를 막론하고 그 子音體系에 破擦音系 齒音과 摩擦音系 齒音의 구별이 없던 언어체계를 상정할 수 있으며, 또한 摩擦音系 齒音과 于母·喻母의 互用도 高位母音 i와 i에 前接하는 z·z가 母音화된 것으로, 이는 有聲音 z·z가 존재하지 언어체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언어체계와의 접촉이 이러한 互用을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舌音·齒音·于母·喻母의 互用은 다음과 같이 聲符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表10〉 聲符로 본 舌音系의 변화과정

聲符	舌音		破擦音系 齒音		摩擦音系 齒音		于·喻母
兌	d·th脫탈 d兌태	→		→	c說설세 c稅稅세	→	j悅열 j說열 j銳예
多	t多다	→	tch修치	→		→	j移이
易	th湯탕 d·th蕩탕 d場腸당)장 th暢탕)창	→		→	s錫석)석 c(傷湯상)상	→	j易역이

藤堂明保(1965)는 위와 같이 聲符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OC를 재구하고 여러 단어군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 異言語의 音韻體系에 해당 音素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것이며, 또한 각 異言語間에 그 변화속도가 달라 舌音·破擦音系 齒音·摩擦音系 齒音·喻母 간에 수많은 多音字를 낳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2.8 語頭複數子音

〈表11〉 서로 다른 音系의 互用

漢字	SK	SJG	SJK	聲韻1	聲韻2	互用類型
1角	각	コク	カク	見覺開2		k⇔l
	록				來屋開1	
2谷	곡	コク		見屋開1	喻燭合3甲	k⇔l⇔j
	록	ロク		來屋開1		
3樂	악	ガク		疑覺開2		ŋ⇔l
	요				疑肴開2	
	락	ラク		來鐸開1		
4尿	뇨	ネウ		泥蕭開4	心脂合3甲	n⇔s
5濫	람	ラム		來談開1	匣銜開2	l⇔f
6母	모		ボ	明侯開1	見桓合1	m⇔k
	모	モウ		明豪開1		
7耗			カウ		曉豪開1	m⇔h
8車	차	シャ		穿麻開3		tch⇔k
	거				見魚開3乙	
9率	솔	ソツ		審術合3乙	審脂合3乙 來術合3甲	c⇔l
10撰	섭	セフ		審葉開3甲	泥估開4	c⇔n

위의 〈表11〉은 서로 다른 音系의 子音이 互用된 예로, 10字에 해당한다. [k⇔l, k⇔l⇔j, ŋ⇔l, n⇔s, l⇔f, m⇔k, m⇔h, tch⇔k, c⇔l, c⇔n] 등과 같이 동일한 언어 내의 자연스러운 音韻變化로는 이해할 수 없는 語頭子音 간의 互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OC에 kl, ŋl, fl, cl, km, hm, ktch sn, cn 등과 같은 語頭複數子音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Bernhard Karlgren(1954)이 OC의 語頭複數子音 존재를 제기한 이래, 李方桂(1995, 1997), 李惠江(2000), 何九盈(2017)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藤堂明保(1965)는 聲符를 이용해 수많은 단어군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表11>에서 제시한 子音의 互用은 다음과 같이 聲符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角, 2谷]를 통해 재구한 ki은 [k各各, 格格,]과 [洛洛絡珞酪駱략, 略략, 路露輅潞로] 등에 사용된 聲符 [各]을 통해서, [5濫]을 통해 再構한 si은 [ʃ艦艦함]과 [ʃ艦覽藍艦籃람] 등에 사용된 같은 聲符 [監]을 鑑 통해서 OC의 複數子音을 再構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si은 그 聲符가 [k監]이며 이를 [k艦艦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複數子音 ki과 si의 교체는 異言語 사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까지 추론해 낼 수 있다. 또한 [各各]과 [格格], [洛洛絡珞酪駱략]과 [略략]을 통해 母音變化的 추이를 탐색해 낼 수 있으며, 동시에 [洛洛絡珞酪駱략]과 [路露輅潞로]를 통해 子音의 母音으로의 규칙적인 변화까지 추론해 낼 수 있다⁹⁾.

단지 聲符를 통해서는 수많은 語頭複數子音을 再構할 수 있지만, OC의 多音字를 통해서 再構할 수 있는 語頭複數子音은 위의 <表8>처럼 일부에 한정된다. 따라서 語頭複數子音은 OC의 초기 형성과정에 CCV나 CCCV와 같은 語頭複數子音을 가질 수 있는 音節構造의 언어체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OC 말기에 이르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한 音節構造가 허용되지 않는 언어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多音字에 그러한 예가 적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OC 이후 CC에 이르기까지 중국 내에서 이러한 音節構造의 방언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주변 민족들의 언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어로 알타이어족의 제 언어를 들 수 있는데, 알타이어족의 언어로 대표되는 몽고어나 터어키어에서도 이러한 複數子音의 구조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OC에 존재했었을 語頭複數子音은 도대체 어느 언어의 체계를 반영할 것일까?

현대한국어에서는 語頭 複數子音이 모두 사라져 버렸지만, 朝鮮時代까지 많은 複數子音이 존재했었다. 그렇다면 古代 알타이어에 語頭複數子音이 존재했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朝鮮時代까지 수많은 複數子音이 존재했었던 한국어로 보아, 적어도 한국어의 기원이 된 알타이어의 어느 계파에 語頭複數子音이 존재했었으며, 그러한 언어체계가 OC의 초기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OC에 걸친 複數子音의 존재는 한국 내 많은 학자들을 큰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OC와 알타이어,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와의 관계까지 최근 그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⁰⁾.

9) 多音字를 통한 OC에 걸친 母音 간의 변화 및 終聲子音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10) 辛容泰(1982, 1984, 1986a, 1986b, 1988)는 알타이어가 漢語의 형성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특히 殷(商)나라의 언어체계가 알타이어의 音韻體系와 유사함을 들어, 한국어·일본어 및 殷(商)의 공통 어휘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세준(2010, 2011, 2017)도 최근 OC와 알타이어와의 관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崔玲愛(1990, 1997), 李海雨(1996), 金泰完(2002), 이선정(2002), 嚴翼相(2008), 金泰慶(2010, 2013) 등 OC와 한국어 고유어와의 同源字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9 그 밖의 互用

〈表12〉 그 밖의 다른 聲母와의 互用

漢字	SK	SJG	SJK	聲韻1	聲韻2	互用類型
1祭	제	사이		精祭開3甲	照皆開2	t \rightleftharpoons tc
2斥	척		세키	清昔開3	穿麻開3	tsh \rightleftharpoons tch
3省	성		세이	心清開3	審庚開2	s \rightleftharpoons c
	싱	시아우				
4索	식		사쿠	審麥開2	審陌開3	c \rightleftharpoons s
	삭	사쿠		心鐸開1		
5溺	닉		데키	泥錫開4	日藥開3甲	n \rightleftharpoons n ₁
6兒	으	니	지	日支開3甲	疑齊開4	n ₁ \rightleftharpoons n ₂
7藥	약	야쿠		喻藥開3甲	來藥開3甲	j \rightleftharpoons l

위의 〈表12〉는 그 밖에 多音字에서 볼 수 있는 개별적인 互用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1祭]의 t \rightleftharpoons tc, [2斥]의 tsh \rightleftharpoons tch, [3省·4索]의 s \rightleftharpoons c는 모두 齒頭音과 正齒音의 互用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는 한국어나 일본어도 그 구별이 없듯이 OC 내에서 그러한 구별이 없는 언어와의 접촉으로 이러한 互用이 일어났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5溺]의 n \rightleftharpoons n₁는 泥母와 日母의 互用例로, AC의 日母 n₁이 OC의 泥母 n에서 分立했다는 점에서 泥母 n의 口蓋音化라는 자연스런 음운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지 n과 n₁에서 口蓋音化한 n₁을 音素로서 구별할 수 있는 언어체계와 더불어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언어체계 마이너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남는다. 즉 한국어나 일본어에도 n과 n₁의 구별이 없듯이 OC 내에서 그러한 구별이 없는 音韻體系의 언어와의 접촉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6兒]의 n₁ \rightleftharpoons n₂는 日母와 疑母의 互用例로, OC와 AC의 音韻體系나 音韻變化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단지 CC에서 疑母 n₂을 n으로 유지하고 있는 方言이 존재하지만, n₁ \rightleftharpoons n₂의 互用은 日母 n을 疑母 n₂으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SK에서 日母n을 母音으로 수용한 것과 유사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泥母 n 역시 한국어의 경우, 語頭에서 母音으로 교체되는데, 이처럼 鼻音이 語頭に 오기 어려운 頭音法則은 한국어를 포함한 알타이어족의 제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질로, 이러한 언어와의 접촉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藥]의 j \rightleftharpoons l은 喻母와 來母의 互用例로, 중국어의 音韻體系나 音韻變化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예이다. 그 聲符로 보아 이는 l에서 j로 交替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국어를 포함한 알타이어족의 제 언어에서 보이는 頭音法則과 유사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 역시 [6兒]의 경우처럼 頭音法則을 가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와의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結論

지금까지 聲母에 차이가 있는 AC의 多音字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분석을 통해 OC의 音韻體系 및 OC에서 AC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1) 多音字의 유형 중에서 OC의 音韻體系 및 OC에서 AC로의 변화가 동일한 언어체계에서의 자연스러운 音韻變化에 해당하는 것에는 [牙喉音과 齒音의 互用, 舌音과 破擦音系 齒音의 互用, 泥母와 日母의 互用] 등을 들 수 있다.
- 2) OC의 音韻體系 및 OC에서 AC로의 변화가 동일한 언어체계에서의 音韻變化로 볼 수 없는 것으로 [無聲音과 有聲音의 互用, 無氣音과 有氣音의 互用, 有聲音과 有氣音의 互用, 牙音과 喉音의 互用, 破擦音系 齒音과 摩擦音系 齒音의 互用, 摩擦音系 齒音과 于母·喻母的 互用, 서로 다른 音系의 互用, 齒頭音과 正齒音의 互用, 日母와 疑母的 互用, 喻母와 來母的 互用]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中原에서 흥망성쇠한 여러 민족의 音韻體系가 서로 간에 접촉을 겪으면서 多音字에 그 흔적이 남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3) 有聲音과 無聲音의 互用, 有氣音과 無氣音의 互用을 통해 有聲·無聲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와 有氣·無氣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가 각각 따로 존재했으며, 이 두 언어가 OC의 오랜 기간에 걸쳐 중앙어의 위치를 점하거나 빼앗기거나 하며 교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有聲音과 有氣音의 互用을 통해 有聲·無聲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의 有聲音이 有氣·無氣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에서 有氣音으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 4) 舌音·齒音·喻母的 互用을 통해 舌音 > 破擦音系 齒音 > 摩擦音系 齒音 > 喻母라는 변화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多音字의 변화유형은 聲符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摩擦音系 齒音이 喻母로 변화된 것은 有聲音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有聲·無聲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5) 여러 音系에 걸친 多音字의 존재를 통해 OC에서 語頭複數子音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OC의 초기 형성과정에 고대 알타이어나 고대 한국어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有氣音은 h가 포함된 語頭複數子音에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도 알타이어의 영향으로 의심되는 것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多音字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OC에서 크게 두 가지 이상의 언어체계가 존재했으며, 각각 그 고유의 音韻體系를 지키면서도 다른 언어체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AC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AC 이후 CC에 이르는 중국어의 역사도 단일 언어체계 내에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또한 본고에서는 多音字의 개괄적인 유형별 분석에 그쳤지만, 여기에서 다룬 각각의 유형은 OC에 존재하는 여러 언어에 대한 각각의 音韻體系를 별도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해 주기는 것이다. 앞으로 多音字뿐만 아니라 聲符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 OC의 수많은 비밀이 조금씩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文獻】

金慶淑(2001) 「透母와 審母의 上古音 來源」 『中國學報』 44 韓國中國學會 pp.3-14
 김연지·한용수(2016) 「중국 상고시기 어음 체계연구」 『韓中人文學研究』 50 韓中人文學會 pp.171-185
 김정빈(2007) 「安田八幡宮藏大般若波羅蜜多經分紐分韻表」 『일본오음연구』 책사랑 pp.485-496
 김지형(2001) 『한자 전래 이전 시기의 韓國語와 中國語와의 比較』 박이정 pp.100-259

- 金泰慶(2008) 「일부 章系字的 상고음 설근음설-한국 한자음 자료를 통한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51 中國語文學研究會 pp.39-59
- _____(2009) 「曉·匣母字와 日母字의 상고음-한국 한자음 자료를 통한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58 中國語文學研究會 pp.97-119
- _____(2010) 「호랑이의 어원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61 中國語文學研究會 pp.31-46
- _____(2013) 「음성은 자음운미설로 본 일부 한국어 어휘의 어원」 『中國語文學論集』 79 中國語文學研究會 pp.51-66
- _____(2015) 「以母의 上古 중국어음」 『中國語文學論集』 91 中國語文學研究會 pp.69-86
- 金泰完(2002) 「漢語 上古音을 통한 韓國語 語源 考察」 『中國人文科學』 24 中國人文學會 pp.107-124
- 宋在漢(2012) 『日本 吳音의 韻類體系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論文 pp.14-231
- 辛容泰(1982) 「韓國語·日本語·中國語 上古音의 比較研究-韓·日·中國語의 共通祖語를 探索하는 一試論-」 『語文研究』 10 韓國語文教育研究會 pp.66-90
- _____(1984) 「三國史記地名의 解讀法研究-韓國語·日本語·中國語(殷語)의 共通祖語를 探索하는 一試論-」 『日本學』 4 東國大學校 日本學研究所 pp.77-107
- _____(1986a) 「韓日語의 [群集·回轉·圓球形]語에 대한 단어족연구 [I]」 『日語日文學研究』 8 韓國日語日文學會 pp.241-265
- _____(1986b) 「韓國語·日本語의 語源研究[III]-韓·日·殷(商)어의 脈絡을 探索-」 『日語日文學研究』 8 韓國日語日文學會 pp.241-265
- _____(1988) 『原始韓日語의 研究』 동국대학교 출판부 pp.3-282
- 嚴翼相(1998) 「多音漢字의 中國音韻學의 分析」 『中國語文學論集』 10 中國語文學研究會 pp.381-425
- _____(2008) 「너·나 중국 상고음설」 『中國語文學論集』 49 中國語文學研究會 pp.75-91
- 오세준(2010) 「漢·일타이 比較로 본 圭·혜·垚聲系의 語源」 『中國言語研究』 33 韓國中國言語學 pp.57-112
- _____(2011) 「“漢·阿準同源詞”中的原音對比」 『中國言語研究』 37 韓國中國言語學會 pp.19-55
- _____(2017) 「關聲系 轉注에서 본 上古漢語와 韓國固有語의 對應」 『中國學報』 79 韓國中國學會 pp.177-200
- 李京哲(2005) 『佛母大孔雀明王經 字音研究』 책사랑 pp.211-213
- 이계정(2015) 「中世 國語 複數漢字音 研究-聲母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41-166
- 李敦柱(1978) 「중국 상고 한자음의 성모 체계」 『한글』 162 한글학회 pp.273-297
- _____(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탐출판사 pp.250-269
- 이선정(2002) 「한어상고음과 우리말 신체어의 연관 고찰」 『중국어언어연구』 15 한국중국어언어학회 pp.305-315
- 李準煥(2016) 「국어 복수 한자음의 자료에서의 반영 양상과 단순화 과정」 『口訣研究』 36 口訣學會 pp.237-282
- 이춘영(2013) 「현대 한국 한자음 성모(聲音)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 탐색(探析) II」 『중국어문학』 63 영남중국어문학회 pp.223-251
- 李海雨(1996) 「日母字를 통해 본 韓國漢字音의 기원 문제」 『中國學論叢』 5 韓國中國文化學會 pp.229-250
- _____(2000) 「中國語 上古音 二等 介音 [-r-]의 再構-」 『中國語文學論集』 13 中國語文學研究會 pp.107-124
- 李惠江(2000) 「上古 어두자음의 존재 가능성 問題」 『中國語文論譯叢刊』 20 中國語文論譯學會 pp.3-21
- 전광진(1996) 「상고음의 음운변화-이화작용-」 『中語中文學』 10 韓國中語中文學會 pp.557-578
- _____(1998) 「중국어 상고음 재구에 활용된 방언자료에 대한 탐구」 『中國文學研究』 16 韓國中文學 pp.299-324
- 趙貞貞(1988) 「漢語聲母變遷研究(I)-『切韻』 이후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10 韓國中語中文學 pp.41-70
- 趙大夏(2003) 「古代 韓日漢字音에 대한 小考-支字의 古音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47 韓國日語日文學會 pp.441-455
- _____(2004) 「古代 韓日漢字音의 對比 研究-斯字의 古音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20 韓國日語日文學會 pp.441-455

- 學會 pp.155-171
- 崔玲愛(1990) 「中國 古代 音韻學에서 본 韓國語 語源 問題」 『東方學誌』 67 연세대학교國學研究院 pp.309-340
- _____(1997) 「中國古代音으로 본 한국어 ‘무엇’ ‘무당’ ‘곰’ ‘님’의 어원 문제」 『人文科學』 78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07-224
- _____(2007) 「詩經 國風 聯綿詞의 음운연구」 『中語中文學』 제41집 韓國中語中文學會 pp.151-166
- 崔志守(2014) 『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통해 본 韓國漢字音의 母胎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pp.25-399
- 佐々木勇(2009) 『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資料篇-』 汲古書院 pp.7-622
- 藤堂明保(1965) 『漢字の語源研究-上古漢語の單語家族の研究-』 学灯社 pp.69-770
- 平山久雄(1967) 「中古漢語의 音韻」 『中國文化叢書1 言語』 大修館書店 p.156
- 矢澤秀昭(2014) 「多音字について」 『敬愛大學研究論集』 85 敬愛大學 pp.63-71
- 董同龢(1944) 『上古音韻表稿』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pp.11-44
- 董同龢·孔在錫 역(1975)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pp.291-308
- 麥耘·廉載雄 역(2014) 「한어역사음운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 장어 비교연구(상)」 『中國語論譯叢刊』 35 中國語論譯學會 pp.483-502
- _____(2015) 「한어역사음운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 장어 비교연구(하)」 『中國語論譯叢刊』 36 中國語論譯學會 pp.525-550
- 李方桂(1995) 「상고중국어의 몇 가지 머리자음에 관한 문제」 『외대어문논총』 한국외국어대학교 pp.335-350
- _____(1997) 『上古音研究』 商務印書館 pp.9-21
- 李榮(1968) 『切韻音系』 科學出版社 pp.116-128
- 何九盈·신아사 역(2017) 「상고 중국어 어두자음군」 『口訣研究』 38 口訣學會 pp.237-266
- Bernhard Karlgren(1954)·李敦柱 역(1985) 『中國語音韻學』 一志社 pp.104-121
- E. 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62-171
- Günther Wenck(1957), *JAPANISCHE PHONETIK*, Otto Harrassowitz Wiesbaden pp.315-338
- William H. Baxter(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pp.45-60
- W. South Coblin(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pp.43-76
- 漢典(www.zdic.net) 검색일 2017. 8. 20.

〈要旨〉

中古音における多音字の類型に関する考察

- 声類を中心に -

本稿では、聲母の異なる中古音の多音字を類型別に分類し、その分析を通じて、上古音の音韻体系及び、上古音から中古音への音韻変化を考察し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である。

1) 多音字の類型の中で、一つの言語体系における自然な音韻変化と見られるものには、「牙喉音と歯音との互用、舌音と破擦音系歯音との互用、泥母と日母との互用」などが挙げられる。

2) 一つの言語体系における音韻変化としては見られないものには、「無聲音と有聲音との互用、無氣音と有氣音との互用、有聲音と有氣音との互用、牙音と喉音との互用、破擦音系歯音と摩擦音系歯音との互用、摩擦音系歯音と于母・喻母との互用、相異なる音系の互用、歯音系摩擦音と破擦音との互用、歯頭音と正歯音との互用、日母と疑母との互用、喻母と来母との互用」などが挙げられる。これ等を通じて、多音字は中原で興亡盛衰した諸民族の音韻体系の接触によって形成され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

3) 有聲音と無聲音との互用、有氣音と無氣音との互用を通じて、有聲・無聲音の区別体系をもつ言語と有氣・無氣音の区別体系をもつ言語が別々に存在していて、この二つの言語が長い間、中央語の位置を占有したりその位置を奪われたりしながら交差してきたと考えられる。又、有聲音と有氣音との互用を通じて有聲・無聲音の区別体系を有する言語の有聲音が有氣・無氣音の区別を有する言語においては、有氣音に入れ替えられたと考えられる。

4) 舌音・歯音・喻母の互用を通じて、舌音 > 破擦音系歯音 > 摩擦音系歯音 > 喻母という変化過程が読み取れる。このような多音字の変化類型は、聲符を通じて確認できる。又、摩擦音系歯音が喻母に変わったのも有聲音に限られるので、このような変化は有聲・無聲音の区別体系を有する言語のみで起こり得たと考えられる。

5) 色んな音係に亘る多音字の互用を通じて、上古音で語頭複数子音が存在し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これは、上古音初期の形成過程に古代アルタイ語や古代韓国語が影響を与えた可能性を見せてくれる。又、有氣音はhが含まれた語頭複数子音から成立した可能性もある。その他にも、アルタイ語の影響であると考えられる現象が見られる。

論文分野：音韻論

キーワード：多音字、上古音、中古音、韓国漢字音、日本漢字音

■ 이경철 (李京哲)

동국대학교 교수, 음운론

kanjee@naver.com

■ 오채현 (吳采炫)

동국대학교 강사, 음운론

oriki-mi@hanmail.net

■ 投稿日：2017년 9월 30일

■ 審査開始：2017년 10월 22일

■ 審査完了：2017년 11월 17일

■ 掲載確定：2017년 11월 24일

www.kci.go.kr